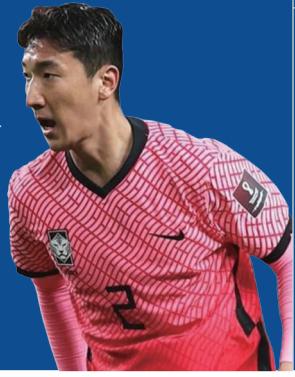


런던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올해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해
또 다른 기적을 위해 달리는
정우영 동문(스포츠지도학 08)을
만나 봤다.



교수연구 선방, 교육 여건 우려 수준 … 개선 필요성 보여

대학주보

벤처기업가의 약속 기업가정신 실천 선언식

2022.11.15



정치화 교수
장관상 수상

정치화(유전생명공학) 교수가 1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 교육 콘텐츠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자유이수 과목인 '창업전략과 모의창업'(서울)과 '지식재산창업'(국제)이다.



전자공학 교수진 공동성명

장비슬 기자 eva6155@knu.ac.kr

【국제】 지난 11일 전자정보대학(전정대) 전자공학과 교수진이 대학 측에 반도체 융합전공에 대한 반대 공동성명을 전달했다.

지난해 9월 개설된 반도체 융합전공은 이과대학 소속 학과인 물리학과와 정보보디스플레이학과의 요청으로 개설됐다. 현재 양 캠퍼스(양캠)를 아우르는 형태로 개편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공학과 교수진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주진 중인 반도체 융합전공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공학과 김동한 학과장은 “전자공학과 교수 전원은 성명서와 같이 반도체 융합전공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양캠을 아우르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정대 학생회도 지난 2월부터 학교 측에 항의 문서를 전달하며 해당 사항은 심각한 문제임을 주장한 바 있다. 전정대 학생회는 “전자공학과가 주관이 돼 교육과정을 다시 검토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했다”며 “대학 측은 새로운 협의 내용이 있으면 학생회 측에 공유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2학기가 시작되기까지 관련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학교 측에 면담을 재차 요청한 끝에 지난 9월 22일 기획조정처가 전정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정대 ▲전자공학과 ▲생체의공학과 등의 학생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캠퍼스 이원화 취지를 근거로 반도체 융합전공 주관학과를 전자공학과로 해 원점부터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전정대 학생회는 “현재도 관련 부서와 소통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캠 총선거 연합선본 구성 논란

최예령 기자 herry2020@knu.ac.kr
박서현 기자 parkseohyun@knu.ac.kr

【국제】 총선거에서 특정 선거본부(선본)가 연합선거본부(연합선본)를 구성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선본은 다른 선거구에 해당하는 선본과 연합해 선거를 진행하는 선본을 말한다. 이번 총선거에 출마한 선본 12개 중 9개는 각기 다른 선거구이지만 ‘경희로운’이라는 구호를 사용했다. 해당 구호를 사용한 선본은 ▲총학생회(총학) ‘희로’ ▲공과대학(공대) ‘원스텝’ ▲외국어대학(외대) ‘하나’ ▲생명과학대학(생대) ‘파란’ ▲예술디자인대학(예디대) ‘예화’ ▲전자정보대학(전정대) ‘WITH:U’ ▲응용과학대학(응과대) ‘UP-FLY’ ▲소프트웨어융합대학(소융대) ‘TAB’ ▲중앙동아리연합회(중동연) ‘중랑’이다. 9개 선본은 포스터 디자인 또한 유사했다.

이중 예디대를 제외한 8개 선본에서는 약 6개의 공약을 ‘소통’, ‘협업’, ‘협의’라는 분류 하에 동일하게 내세웠다. 특히 총학 선본은 해당 공약을 ‘단과대학 학생회와 긴밀한 협업 및 소통을 통한 공동 사업’이라고 명시했고, 소융대 선본은 ‘타 단과대학 선거운동본부 협의사항’이라는 표현을 명기해 특정 선본이 공약 발표가 허가된 날짜 이전 타 선본과 공약을 협의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연합선본을 구성했다는 의혹을 더욱 키운 상황이다.

연합선본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지난 2020년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에서 연합선본과 관련한 내용이 삭제돼서다. 개정 과정에서 기존 31조 2항의 ▲같은 정책을 지향하는 선본은 공동의 선본 명칭을 사용해 연대, 연합선본을 구성할 수 있다 ▲타교정의 공동의 선본 명칭을 사용해 연대, 연합선본을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선거시행세칙 개정 당시 총학에 따르면, 연합선본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은 공명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다. 과거 연합선본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선거철마다 관련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총선거에서 ‘열림’ 선본은 연합선본으로 출마해 총학을 비롯한 다수의 선거구에서 당선된 바 있다. 이후 2018년 총선거에는 ‘이룸’ 선본과 ‘클리어’ 선본이, 2019년 총선거에는 ‘공감’ 선본과 ‘워쿠맨’ 선본이 연합선본을 구성했다.

‘열림’ 선본은 ‘이룸’과 ‘공감’ 선본으로, ‘클리어’ 선본은 ‘워쿠맨’ 선본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각 선거구에서 양 연합선본이 경선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자 학생사회에는 연합선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있는 상태다.

해당 조항 삭제를 제안한 A 씨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합선본은 총학과 단과대학 간 사

업 협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연합선본은 학생자치보다 선거 차원에서의 이득이 대부분이라 삭제하게 됐다”고 의도를 밝혔다. 이어 “합동유세 또한 연합선본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에 해당 언급이 삭제된 것이며, 선본명 통일도 연합선본의 뿌리라고 판단해 관련 세칙을 개정했다”며 “공명성 확보와 출마자 배려에 주점을 둬 선거시행세칙 개정에 나섰고, 연합선본 조항의 삭제까지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현재 총학생회 선거구와 단과대학 선거구, 특별대표기구 선거구의 연합으로 보이는 행위가 선거시행세칙 8장 58조 18항(선거의 공정과 공명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에 위배되는가’라는 의결안에 대해 반대 5표, 기권 5표로 부결한 상황이다.

▶3면으로 이어짐